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 :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 :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변화를 받으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의 인격에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큼니다. 한 술밥을 먹으면서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영향도 큼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욱 큰 영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인격적 변화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면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까지 지대한 변화를 줍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할 사람이 있을 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며칠 전 영국 Westminster 교회의 Loyd Jones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유명한 보수적 설교자의 한 사람입니다.

Loyd 목사님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나온 사람도, 아직 변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이 분은 의사였습니다.

이 분은 태어날 때 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장해선 직분도 맡아 봉사를 했습니다.

매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서면, 다음 주일 아침 교회에 올 때까지 주님은 거의 잊어 버리고 삽니다. 주님을 찾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귀에 때가 안도록 들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적도 없었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본 적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민 해본적도, 마음 아파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에 한 터럭만큼의 변화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매일 매일, 매 분 매시간 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속에 군림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근본적 변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사라소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한국 교회를 나가기 위해, 제가 다니던 St. Pete 장로 교회에 집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모님이 대짜 고짜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겼습니다. 사모님은 교회가 아주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형편도 모르는 채로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돕기 위해 그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신경 강해 공부가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 집사님은 20년 동안 St. Pete 교회에 다녔으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물질 축복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여 17년 동안 교회 부역 살림을 챙긴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도 인격적 변화에 대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막연히 천국에 간다고 믿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 신경 강해반을 모집할 때 그 여 집사님은,
나는 공부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공부라면 나하고는 관계가 멀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참가해야겠다는 마음이 웬일인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참가하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memory verse 를 해야 하며, 과제물은 반드시 해야 하며, 2 번 결석하면 자동적으로 탈락한다는 것이 참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여 집사님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집사님은, “나는 thirsty 하다. 나는 배가 고프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한다” 하며 청강생으로 들어와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성경 공부에서 이 여 집사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의 세계에 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 집사님은 14 주 동안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낭독 카세트 tape 를 듣다가 자기 가슴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집사님은 다른 권사님 한 분과 함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에 대해 3 개월간 우리 집사람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 집사님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뛰어 다녀야 할 사람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구석방에 쭈그리고 앉아,

매일 성경 낭독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처럼 달고 좋은지 모르고

지난 20 년을 허송 세월한 것이 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비디오에 빠져 사는 것을 보면 불쌍하게 보며

“비디오 좀 그만 보고 성경공부나 좀 해”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집사님의 옛날 생각만 하고,

“어머머! 사돈이 남 말하네,” 하며 듣지 않는 답니다.

지금은 안양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입학하여 통신으로 공부하며, 선교의 꿈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김 정희 집사입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고 계신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로 예수님 만나 인격의 변화를 체험한 살아 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와 만나십니다.

말씀을 매체로 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만나십니다.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직접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직접 부르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에는 양자 간의 인격적 교류와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 보겠다는 방향전환이 있습니다.
공연히 울고 가는 것이 인격적 만남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이유없이 웃고 다니는 것이 인격적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 만남에는 반드시 인격에 일어나는 변화가 체험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뼈를 찢어내는 아픔도 있으며,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도 있습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 갈수록 기쁨도 커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저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묵상할 때 확신이 솟아 오릅니다.
출애굽기 3 :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 : 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출애굽기 3 :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떨기 나무는 가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향기가 만발한 장미 꽃밭 사이에서 부르지 않으시고, 가시 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가시 나무는 모세의 마음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가시 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 한 복판에서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태워서 소멸하는 불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서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가시 나무가 모세의 마음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40 년 전,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인들에게 압제 받는 것이 불쌍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의 아라비아 땅, 미디안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디안에서의 망명 생활 40 년에
모세의 인격에 가해진 상처는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왕위에도 나아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미디안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구복을 채우기 위해 양을 치는 목동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사람들은 소위 왕자병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아래에서 굽실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데릴 사위로
40 년째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요사이 말로는 엘리트 중에서도 귀족 엘리트입니다.
지금의 영국의 황태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급전직하, 갑자기 신분이 떨어져 사회의 최하층민과 어울려, 최하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방어를 합니다.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를 받으면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보상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것은 상처가 되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미디안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40 년 동안에

모세의 자존심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상처받은 자존심은 가시가 되어 자꾸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가시는 점점 자라, 자기만 찌르는 것이 아니고 남도 찔러대는 억센 가시로 변했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상처는 말을 더듬는 이상 심리로까지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는 입이 뻗뻗하여 말을 못한다’고 회피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에 모세의 마음은 시들고 메말라 빠진 가시나무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음에 가시 뿐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될 대로 되라 ‘는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시 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시 나무 가운데에서 타는 불꽃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지도자 인격의 제일 조건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교회의 leader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시가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염소가 되어 자꾸 양무리를 받고 찌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가시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가시를 태우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네 인격 안에 있는 가시를 태워라.

그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염소가 되어 양무리를 받고 찔러 댄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그것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 불이 떨어져 불이 타고 있습니다.

가시 나무 같은 모세의 마음에서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은 계속 타면서 가시를 태웁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가시가 불타 버린 후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켜

민수기 12:3 에서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온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가시가 불태워지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시를 태우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 :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출애굽기 4 :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출애굽기 4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여기서 지팡이는 영국 신사가 들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끝은 hook 이 있는, 긴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필수품입니다. 이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 합니다.

산이 많은 시내산 지역에선

양이 깊은 곳에 빠지면 이 지팡이로 건져 냅니다. 뱀을 죽이고 맹수를 쫓습니다.

또 캄캄한 밤에는 이것으로 더듬어 집으로 옵니다.

이 지팡이는 팔십 먹은 노구의 모세가 광야에서 의지하고 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것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선 이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던지면 모세는 쓰러져요. 모세는 이 것 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는 사막의 코프라처럼 고개를 고추 세우고 모세를 삼키려고 쉼 쉼 소리를 내며 덤벼 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모세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태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살던 것,

그것은 있는 그대로는 너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뱀과 같은 것이다.

모세야!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는 뱀처럼 너를 삼키려고 덤벼 드는 것이다. 그 것을 놓아라.

그리고 변화함을 받아라.

그것이 변화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300 만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4 :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어 뻗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애굽의 하수에 담구니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변화되기 전 모세 한 개인에게 속해 있을 땐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 쓰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300 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이런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4 : 6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출애굽기 4 : 7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네 손을 가슴에 넣으라

손을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이 발하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어 넣으니 옛날과 같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둥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문둥이! 생각만하여도 몸이 움츠려 듭니다.

문둥병의 시작은 살갗에 하얀 반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앉아 딱딱하게 되고, 이 것이 점점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통증이 오고, 온 몸을 썩게 하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이 썩어 점점 온 몸으로 퍼지며, 그 후에는 온 몸을 몽그러 뜨립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것이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의 고통이 오나,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에 딱딱하게 껍질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점점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죄가 왕이 됩니다.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속사람을 완전히 문둥병처럼 몽그러뜨립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썩은 냄새로 코를 찌릅니다.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와 문둥병의 결과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문둥병이 발한 자신의 손을 보게 하셨을까요?

문둥병이 발한 자기의 손을 보고 모세는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40년전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애굽인 간역자를 죽인 것을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바로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모세는 일이 탄로된 줄 알고 죽음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기도한 번 안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 받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울며 불며 도망갔습니다.

그후 40년 동안 마음속에 자기 백성에 대한 끝없는 미움, 증오로 불태웠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며 마음 속 깊이 깊이 미움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것을 다시 꺼내 되새김하는 소처럼

미움을 되씹고 되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나? 자기들을 위해 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짓밟아 버릴 수 있단 말이나?
염치도 감사도 모르는 것들!”

자기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죄는, 모세의 마음 속에서 마치 문둥병처럼 모세의 전인격을
몽그러뜨리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미움의 세월 40년, 증오심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문둥병으로 썩은 가슴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 자기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어냐. 내 마음 속에다 여태까지 넣고 살았던 것은 문둥병이 아니냐?

이것은 내 인격을 잡아 먹고 썩게 하고 냄새를 발하는 문둥병이었구나.

이것은 부정한 죄였구나.

이 문둥병은 나를 잡아 먹은 것 외에는 내게 준 것이 무어냐?

얻은 것이 무어냐?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내 모습만 남았구나!”

생각이 그에 미치자 그는 염치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고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던 배신감, 미움, 증오, 상처, 열등감이

용서로 인하여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합니다.

모세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강물이 흘러도 수십 번 수백 번 흘러 내려 갔건만,
아직도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내어 버리지 않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을 마음 속에
용서 못하는 문둥병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오늘도 몽그러 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문둥병이 치료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와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를 힘입어
남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속에 문둥병이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용서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만남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뜨뜻 마지근하게
교회 문턱만 닳게 하는 신앙 생활을 이제는 다 내어 던지고,
모세처럼 모든 것 다 내어 던지고,
모두 용서해 주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